

강릉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온몸으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길

2천300만 년의 시간이 쌓여 만들어낸 비경은 금단의 구역이었다. 군의 경계근무 정찰길로만 이용되던 정동진의 해안단구 탐방로가 '정동심곡 바다부채길'로 단장하고 일반 탐방객에 공개되고 있다. 바다에 뛰어들지 않아도 온몸으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길이다.

글 한미희 · 사진 전수영 기자



서울 광화문에서 정동쪽에 있다는 뜻이 이름에 담긴 강릉의 정동진.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동진의 명물은 아무래도 정동진역이다. 1995년 당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여주인공 윤혜린(고현정 분)이 홀로 찾은 이후 정동진역은 인적 드문 간이역에서 강릉 최고의 관광지가 됐다. 정동진역에서 남쪽으로 정동진 해변과 모래시계 공원, 정동 포구를 지나 내려오면 썬크루즈 리조트 주차장에서 깊은 계곡 마을 삼곡항까지 이어지는 해안 탐방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이 이제 그 명성을 잇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강릉까지 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서 이곳을 찾는 이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곳 해안은 일반인에게 걸을 내주지 않는 곳이었다. 여전히 군의 경계근무가 이뤄지는 이곳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일반인에게 개방된 적이 없다 한다. 2천300만 년 전인 신생대 제3기말~제4기초에 일어난 지반 융기작용으로 해안단구가 형성된 이후 태고의 비밀과 아름다움을 간직해 왔다. 국내에서 가장 긴 해안단구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돼 있다. 앞서 개발된 강릉 지역 트레킹 코스인 바우길과 동해안을 잇는 해파랑길도 이곳을 비켜갔다. 바다부채길은 2년에 걸친 국방부와 협의와 문화재청의 허가 과정 끝에 2016년 10월 임시 개통했다. 임시 개통 기간에만 50만 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3~5월에는 낙석방지망 공사를 위해 통제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보강한 뒤 2017년 6월 유료로 정식 개장했다. 총 길이 2.86km로 여유 있게 걸어도 한 시간 남짓이면 충분한 길지 않은 코스다. 정동 매표소와 심곡 매표소 양쪽에서 입장할 수 있다. 심곡에서 출발하면 우측통행인 탐방로에서 바다와 한 발 더 가까운 이점이 있지만, 마지막에 출구인 정동 매표소로 올라가는 300여 개의 가파른 계단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노약자나 어린이가 동행한다면 정동에서 내려가는 게 좋다.

발아래서 부서지는 파도

정동 매표소로 입장하면 먼저 계단으로 절벽을 내려가야 한다. 소나무 숲 사이로 만들어진 계단을 올라오는 사람들이 헉헉거리거나 앓는 소리를 낸다. 몽돌이 깔린 바닷가에 다다르면 옛 순찰로가 먼저 나타난다. 뽕죽한 가시가 박힌 철조망이 청청 감긴 철책을 따라 걷는다. 탐방로로 올라서면 본격적으로 바다와 만나는 길이다. 파도는 바로 옆에서 부서지기도 하고 발아래까지 밀려 들어오기도 한다. 지형과 주변 바위의 크기, 자리 잡은 위치, 바다의 깊이와 골을 이루고 있는 모양에 따라 파도가 밀려와 부딪히고 부서지는 모양과 소리도 다르다. 파도가 센 곳에서는 철썩덕 하는 소리가 귀와 머리에 가득 차 울린다. 철제 다리가 꽤 높은 곳에서는 살짝 두려운 마음마저 들 정도로 아찔하다. 검푸르거나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닷물과 하얀 포말이 마구 뒤섞인다. 육지 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작은 만을 이루는 곳은 언제 그랬냐는 듯 파도도 잦아든다. 잔잔한 물결과 투명한 바닷물 아래로 바닥이 내려다보이고, 파도 대신 물결을 따라 자갈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 언제나 바다를 그리워하고 바다를 보면 설레지만, 정작 바다를 앞에 두고도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혹은 뛰어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수천만 년의 시간을 드러낸 곳

오른쪽의 해안단구 절벽으로 눈을 돌리면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해풍을 맞으며 자란 소나무들이 절경이다.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져 나온 바위들은 흙이 쌓여 지반을 이루고, 솟아오르고, 파도에 깎이는 수천만 년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자연이 만들고 깎아낸 바위에 이야기를 붙이는 건 사람의 몫. 투구를 쓴 장수의 모습과 닮은 투구 바위를 보며 감감찬 장군의 설화를 이야기한다. 그 옛날 발가락이 6개인 육발호랑이가 밤재길을 넘어가는 사람 앞에 스님 모습으로 나타나 내기 바둑을 두고 이기면 사람들을 잡아먹었다 한다. 강릉에 부임한 강감찬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밤재에 가서 부적을 써 붙이니(편지를 보냈다고도 한다) 육발호랑이가 백두산으로 도망을 갔다는 이야기다.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경계 초소는 물론, 새로 만든 탐방로 옆에



녹슨 옛 순찰로와 철조망, 눈앞을 가로지르는 통신 케이블, 사진촬영이나 무단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들은 여전히 이곳이 군의 경계근무가 이뤄지는 지역이라는 점을 떠올리게 한다.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구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짜릿한 기분을 더해주는 듯했다. 빗금을 쳐 놓은 듯 사선으로 기울어져 박혀 있는 기암괴석과 시시각각 달라지는 초록빛 바다와 파도 소리를 즐기며 슬렁슬렁 걷다가 잠시 벤치에 앉았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발가락을 까닥거린다. 발가락 사이가 간지럽고 시원하니 쿡노래도 흥얼거린다. 지나가던 탐방객이 손바닥에 간식을 떨어주신다. 간식을 먹고 힘을 내 손을 털고 일어서 다시 걷다 보니 미끄럼이라도 타고 싶게 매끈한 경사면이 있는 커다란 바위가 나타난다. 부채를 펼쳐 놓은 모양을 닮아 부채 바위다. 탐방로의 이름에도 기여한 그 바위다. 바위를 뺄 똬리 이어놓은 길을 따라 바다 쪽으로 더 나가면 전망대가 있다. 정면으로는 망망대해와 하늘이, 양옆으로는 지나온 길과 이제 가야 할 길이 보인다. 바위를 돌아 나오면 이제 길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 높지 않은 계단을 오르면 멀리 방파제 끝에 빨간 등대가 보인다. 길의 끝인 심곡항이다. 계속 보면서 지나온 바다와 바위와 파도와 절벽과 소나무가 여전히 이어지지만, 질리지 않는다. 심곡전망타워에서 질리지도 않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내려온다. 해안단구 절벽 아래 바다를 매워 만든 현화로 드라이브는 이 길의 완벽한 마무리가 된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길에서 차로 갈 수 있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길이 이어진다. ▼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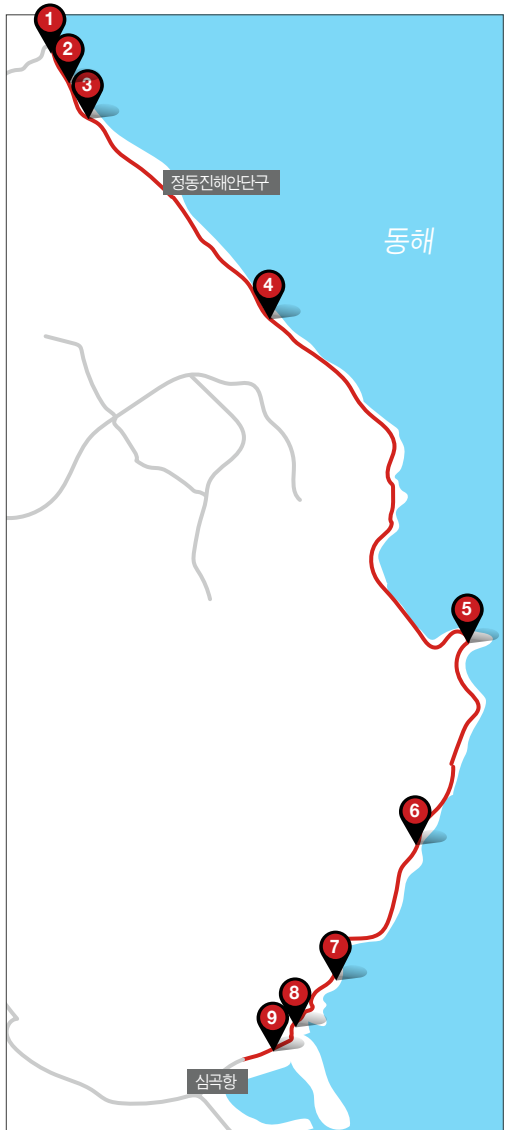
한여름에 뛰어든 수 없는 바다가 그림의 떡처럼 아쉬운 사람도 있겠다. 실제 한여름에 탐방객이 가장 적은 편이라고 한다. 가림막이 있는 벤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나무 그늘 하나 없는 땀별이라 아예 자리잡고 쉼한 곳은 마땅치 않다. KTX 개통 이후 평일에도 3천 명, 주말에는 7천 명까지 몰려드는 번잡함을 피하고 싶다면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오전 9시 입장시간에 맞춰 가거나, 해가 절벽 뒤로 넘어가는 오후 2시 이후라면 뜨거운 한낮의 태양을 피해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다. 봄과 가을, 맑고 파도가 치는 날이 가장 좋다고 한다. 겨울의 파도도 운치 있지만, 그 파도가 너무 심하면 폐장하기도 한다.

▶입장 요금은 어른 3천원, 청소년·군인 2천500원, 어린이 2천원. 30인 이상 단체는 500원씩, 강릉시민과 교류도시 시민은 1천원씩 할인된다.

▶여전히 군의 경계근무가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절기(4~9월)에는 오후 5시 30분, 동절기(10~3월)에는 오후 4시 30분까지만 운영한다. 마감 한 시간 전까지 입장할 수 있다. 너울성 파도 등 기상이 좋지 않을 때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이 통제될 수 있다.

▶정동과 심곡 양쪽 매표소 인근에 무료 주차장이 있다. 정동에는 버스 주차장 세 곳과 승용차 주차장 1곳이, 심곡에는 승용차 주차장 2곳이 있다. 정동 매표소가 있는 썬크루즈 리조트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는데, 주말과 공휴일에는 유료다. 두 매표소를 오가는 순환버스로 주말과 공휴일에만 유료로 운행한다.

▶탐방로 안에는 화장실이 없다. 매표소 인근에 마련된 화장실에 들렀다 가는 것이 좋다. 평탄한 길이지만 철망으로 된 구간이 많으므로 굽이 있는 산길은 위험할 수 있다.



❶ 썬크루즈 리조트 주차장에 마련된 정동 매표소



❷ 소나무 숲에 만들어진 300여 개의 계단을 따라 내려간다.

❸ 몽돌 해변, 철책을 따라 난 길은 군의 경계근무 정찰로다.



❹ 강감찬 장군을 떠올리는 투구바위



❺ 바다를 향해 가장 멀리 나갈 수 있는 부채바위



❷ 해안단구 절벽 아래로 이어진 탐방로



❸ 처음이자 마지막인 계단을 오르면 멀리 심곡항이 보인다.



❹ 심곡전망타워

❹ 심곡항



강릉 임해자연휴양림 산에서 바다를 느낀다

짜장과 짬뽕만큼이나 갈등을 부르는 선택지라면 산과 바다도 빼놓을 수 없다.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에서 멀지 않은 임해자연휴양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산과 바다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내 휴양림이다.

글 한미희 · 사진 전수영 기자

괘방산 자락에 올라앉은 임해자연휴양림은 강릉통일공원 안에 있다. 정동진에서 울곡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른쪽의 함정 전시관을 지나면 바로 강릉통일공원 입구다. 함정 전시관에서는 강릉 앞바다에서 좌초했던 북한 잠수함과 우리 해군함정인 전북함(3천400t급)을 내부까지 둘러 볼 수 있다. 강릉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상륙해 사흘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현장이다. 1996년 9월 18일에는 함정 전시관에서 지금 관람객을 맞고 있는 북한 잠수함이 좌초한 곳이기도 하다. 당시 49일간의 수색작전 끝에 잠수함에서 탈출해 내륙으로 잠입했던 북한 군인 26명 중 1명만 생포되고 13명이 사살됐다. 11명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곳에 통일공원이 만들어진 이유다. 공원 안의 통일안보전시관과 야외 전시장을 지나 살짝 가파른 임도를 따라 올라가면 휴양림이다. 차례로 숲속동, 바다동, 구름동, 하늘동이 각각 다른 높이에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객실에서 바다가 보이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늘동 2층의 바다 전망이 최고다. 이른 아침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에 눈이 절로 떠진다. 해돋이를 위해 숙소 바깥으로 나갈 필요도 없다. 바다를 향해 난 베란다 문만 열면 수평선까지 시선이 닿는다. 태풍 '쁘라삐룬'이 다가오고 있었던 7월 초의 어느 아침, 두꺼운 구름이 잔뜩 내려앉아 있었지만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곳은 붉게 물들었고, 구름 사이로 뻗어나오는 강한 햇살에 눈이 부셨다. 내친김에 산책에 나선다. 하늘동 뒤편에서 바다 쪽 해돋이 전망대까지 이

어진 숲 속 산책로는 전날 내린 비 때문인지, 새벽에 맺힌 이슬 때문인지 촉촉하게 젖어있다. 멍석으로 포장해 놓은 길은 가벼운 샌들이나 슬리퍼를 신고 걷기에도 편하다. 옷자란 수풀을 헤치고 가다가 발견한 산딸기는 아쉽게도 설악었다. 짧은 산책로지만 곧게 뻗은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오솔길도 제법 그럴듯해 콧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진다. 전망대에 서면 보이는 것은 발아래 소나무 숲과 바다, 그리고 하늘뿐이다. 본격적인 산행도 가능하다. 숙소 뒤편, 괘방산 등산로는 강릉 지역의 트레킹 코스인 바우길의 8구간 '산우에 바닷길'과 겹친다. 안인항과 정동진역을 잇는 이 길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서로 다른 풍경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소나무 사이를 걸다가도 시야가 탁 트인 곳에서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휴양림 숙소에서 삼우봉까지는 왕복 1시간이면 다녀올 수 있고 삼우봉에서 안인삼거리까지 2.9km, 정동진역까지 6.2km다. 정동진 방향으로 내려가면 자장율사가 창건한 등명낙가사로 내려가는 길도 있다. 전체 구간을 여유 있게 걸으면 4~5시간 정도 걸린다. 지척에 있는 하슬라아트월드도 둘러볼 만하다. 언뜻 외국어로 들리는 '하슬라'는 삼국시대 강릉의 지명이라 한다. 현대미술관과 피노키오미술관, 조각공원, 호텔, 레스토랑, 카페가 있는 복합예술공간이다. ❶



사진 / 강릉관광개발공사 제공



Tip

[이용 방법 & 요금]

예약은 강릉관광개발공사 홈페이지(www.gtdc.or.kr)를 통해 언제든 할 수 있다. 매월 1일 오전 9시 다음 달 예약이 개시된다. 입실은 오후 3시, 퇴실은 정오다. 입실할 때 오후 7시까지의 안보전시관 사무실에서, 그 이후에는 바다동 당직실에서 객실 열쇠를 받으면 된다. 객실 정원에 맞춰 침구류가 준비되고 전기밥솥, 냉장고, 인덕션, 냄비, 프라이팬, 수저, 식기세트 등이 갖춰져 있다. 개인 세면도구와 수건은 챙겨가야 한다. 반려동물은 데려갈 수 없다. 울여름 성수기는 8월 24일까지고, 연말연시(12월 24일~1월 5일)에도 성수기 요금이 적용된다.

원룸형(4인실) 평일 5만원, 비수기 주말 9만원, 성수기 10만원

거실·침실1/복층형(5인실) 평일 6만5천원, 비수기 주말 11만원, 성수기 13만원

거실·침실1(6인실) 평일 7만원, 비수기 주말 12만원, 성수기 14만원

[가는 길]



[문의]

임해자연휴양림
☎ 033-644-9483